

이훈재
8-4

평양국제토론회 토론회

일본군의 세균전, 1940-1941년을 중심으로

93, 11, 7~8

릿교대학 강사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성원

이표 도시야

일본군의 세균전, 1940 - 1941년을

중심으 로

릿쿄대학 강사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성원

이코 도시야

1980년대 이후 일본현대사연구에서는 1931년 이후의 소위 15년전쟁시기에 있는 일본의 전쟁범죄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제2차 중일전쟁에서의 남경사건과 독가스작전 아편 정책, 아세아태평양전쟁시기에 있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의 주민학살 등의 문제였다.

그리고 최근 2년사이에 일본에 의한 성적노예 정책에 대한 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일본군과 일본 정부 자체가 이 정책을 추진 시키고있었다는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연구자인 요시미 요시 아키는 이 문제에 대한 자료조사사업을 하는 과정에 일본군의 세균전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였으며 그후

저를 포함한 여러명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앞에서 지적한바와같은 15년전쟁시기에 저지른 일본군의 전쟁범죄의 하나인 일본군의 세균전에 대하여 종래의 연구성과와 최근 중국에서 출판된 자료집과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자료에 기초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가운데 일본이 중국동북부를 《만주》라고한 표현과 중국에 파견된 군대의 명칭인 《저나 파견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의 명칭을 사용하고있다는것을 양해하여주기 바랍니다.

륙군군의였던 이시이 시로의 공작에 의하여 도표의 육군의학교에 방역연구소가 설치되어 세균무기연구가 시작된것은 1932년이였습니다.

그 연구가 일본의 강점하에 있는 중국동북부에서 대규모적으로 실시되게 된것은 1926년에 할빈의 관동군 방역급수부(소위 이시이부대)와 장안의 관동군군마방역창(소위 와카마쓰부대)가 편성된 이후부터입니다.

중일전쟁이 확대되면서 1939년에는 베이징, 광둥,

남경에도 세균전부대가 편성되었으며 이시이부대도

1940년에는 새로운 본부를 평방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841년 8월에 이시이부대 평방본부가 제731부대로 개칭되었으며 오늘에 와서는 이 명칭이 15년전쟁시기의 일본군의 세균무기개발, 세균전에 대한 대명사라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이시이부대를 핵으로 한 세균전부대가 세균무기의 개발, 세균의 배양, 세균전, 생태실험 등을 자행하고있었습니다.

이시이부대는 관동군사령부의 승인하에 늦어도 1938년 2월에는 생태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생태실험의 《자료》로서는 항일유격대활동과 간첩활동의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조선인, 몽골인, 소련인이 사용되었으며 그들은 《통나무》라고 불리웠습니다.

《통나무》에 대해서는 탄저, 페스트, 장티브스, 파라티브스, 적리, 코레라, 비저, 류행성출혈열(손오열) 등의 세균감염실험, 동상, 독가스, 사람과 말의 혈액교환, 진공환경, 거꾸로매달기, 이식수술, 매독감염, 무기성능 등의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1940-45년 5년사이에만도 이시이

부대는 약 3000명의 《통나무》를 죽였습니다.

이시이부대가 배양한 세균이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된 것은 1939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일본의 강점하에 있던 중국동북부의 소위 《만주국》과 조선국경에서발생한 노모한사건으로 불리우는 전투에서였습니다.

이 노모한사건을 앞두고 이시이부대의 동향을 이번에 우리가 조사한 이모또 구마오라는 일본의 참모본부작전과 성원이였던 군인의 일기 통하여 보면 1939년 3월 26일에는 관동군방역급수부의 이시이 시로 등으로부터 참모본부작전과 성원들이 세균작전연구결과에 대하여 청취하고 《연구를 거듭하여 자신심을 가진후 실지 실험에 착수하는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5월 14일에 이모또는 이시이부대를 견학하고 이시이부대가 《진지하게》 실험에 달라붙고있다고 감탄하였습니다.

이시이부대의 연구사업은 1939년 봄에는 육군중앙에서 일정한 평가를 받았으며 육군중앙은 《실지실험》 즉 실전에서 세균을 사용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이모또일기에서는 그이후의 노몽한사건에서 세균을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노몽한사건 개시후 얼마 안있어 일본이 패배할 기색이 농후하게 되자 이시이부대는 쏘련군에 전염병에 대한 타격을 가할 계획을 세워 노몽한군방의 하르하강에 장티브스균 등의 용액을 뿌렸던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시이부대는 장티브스 등의 사르모네라균을 강에 뿌려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듬해인 1940년에 확인했다고도 합니다.

1940년이후 세균전부대는 실험을 거한 새로운 세균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세균 혹은 페스트균에 감염된 벼루기(페스트 벼루기)를 공중에서 비행기로 살포하여 전염병을 퍼뜨리는것이였습니다.

이 세균전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시작된것은 1940년 봄부터였던것 같습니다.

이모또의 1940년 5월 31일의 일기에는 세균전의 비밀암호인 《호》호라고 기입된 옆에 사와다 시게루 부참모장이하 참모본부의 작전과와 편성동원과 성원들

의 이름이 기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시기에 참모본부의 이러한 상층부가 세균전의 실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모또는 지나과전군참모로서 중국대륙에 있었었는데 6월 28일에는 육군중앙과의 연락을 위하여, 세균전에 대한 연락을 위하여 도쿄에 갈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모또일기에서는 어디까지나 육군중앙과의 연락하에서 세균전을 실시하려는 지나과전군측의 태도를 엿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 이모또는 이시이부대와 세균전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또한 《도쿄에서 명령을 하달하므로 즉시 작전을 위한 항공참모가 도쿄에 올라올것》이라는 전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세균전실시에 대한것으로 판단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8일에는 참모본부 제1부장인 도미나가 교지 등이 중국 절강성 Ningpo를 방문하여 세균전에 대하여서도 이모또 등과 토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는 이모또가 이시이부대와 공격
목표를 선정하고 절강성의 Ningpo와 구현이 정당한곳이라고
선정하였으며 세균전형 《탄약》수송이 이 날에 개시되었
습니다. 9월 18일 이시이부대와 이모또와의 연락
에는 《개시가 지연된 리유》가 전달되었으므로 예정보다
도 작전이 늦어졌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날의 일기에는 세균의 생산량에 대한 서술
을 한곳에 《씨》와 《티》라는 기호가 있는데 이것은
《코테라균》과 《티브스균》을 가리키는것이라고 추측됩니
다. 그리고 여기서는 목표로서 대주, 온주, 려수, Ningpo
같은 지명이 렬거르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모또가

10월 7일에 이시이부대에서 청취한데 의하면 《수송
< , > 지금까지 6회》《지금까지의 공격회수 6회》로 되
여있는바 그때까지 일본군이 6회에 걸치는 세균전을 하
였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이때까지의 공격에서 제일 적당한
공격방법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다음날인 10월 8일의 이시이부대군인과의

련락에서는 《실험은 언젠가도 완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12월에는 일단 끝내고 내년엔 다시 했다》는
방침이 뚜렷해졌습니다.

결국 11월 20일경에 지나파견군과 이시이부대사이
에서 11월 그믐날 우선 세균전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마지막 공격목표로서 금화가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상에서 언급한 이모또일기의 결과와 대조하
는 의미에서 중국측의 자료를 인용하여 세균전의 경과를
봅시다.

중국측의 자료에 의하면 이 시기에 일본군의 첫 세
균공격은 1940년 10월 4일 구현공격이었으며 비행
기에서 살포된것은 페스트에 감염시키는 벼룩이었습니다.

또 10월 22일에는 녕파에서 일본군이 보리
숨 등을 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근현에서도 일본군이 밀 등을
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금화에서 물고기알같은
알약을 뿌렸습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어디서나 페스트가 유행되고 각지에서 수십명, 내지 수백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또한 12월 10일에는 녕파주변의 상로현에서, 19일에는 금화의 양개현에서 일본군이 비행기로 페스트균을 뿌렸다는것이 지적되어있습니다.

현재 일중 량견자료에는 회수나 대상지역 등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측이 10월 7일까지 6차례의 공격을 하였다고 하는데 중국측에서 그에 해당되는것은 10월 4일의 구현뿐이고 일본측의 공격목표로 렬거된 대주, 온주, 렬수 등에 대한 중국측의 보고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 초기작전이 어떤 리유에서인지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모또일기에 의하면 작전이 중지되어있어야 할 1940년 12월에 세균전이 실시되었다는것이 중국측의 연구에서는 지적되어있습니다.

일본측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균을 어떤 형태로 뿌렸는가가 명백하지 않은데 이모또일가의 10월 7일 란에는 《폐는 혹시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폐》는 모름지기 《페스트균》을 가리키는 것이며 중국측의 페스트류행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모또일가에 있는 11월말의 금화에 대한 공격결정은 중국측의 기록과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941년 호남성 상덕에서의 세균전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 작전이 구체화된것은 1941년 9월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 참모본부 작전과에 돌아와있던 이모또의 일기에 의하면 9월 15일에 세균전이 결정되고 다음날인 9월 16일에는 세균전을 실시할데 대한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또는 11월 25일에 상덕에 대한 세균공격보고를 들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11월 4일 아침 5시반에 일본군 비행기가 출발하고 6시 50분 상덕에 도착하였으며 그 상공에서 《좁쌀 36kg》을 뿌렸다고 되어있습니다.

상덕에서는 11월 11일 이후 페스트환자가 발생하였는데 일본군에서는 11월 20일경에 《맹렬한 <페스

트> 유행》을 확인하고 있고 이모또일기에는 《명중하면 병 발생은 확실》하다는 판단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모또일기에 의하면 1939년 이후 일본군의 세균전이 이시이부대, 지나파견군, 또 육군중앙인 참모본부의 긴밀한 연락밑에 실시되었다는것은 명백하며 특히 1940년과 1941년의 중국, 절강성에서의 작전에 대해서는 종래의 중국측의 자료와 중요하게 일치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중국측자료의 정확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며 앞으로 일본측자료에 의하여 조속히 안받침할것이 요구되는것입니다.

세균전은 1925년 6월에 조인된 제네바협정에 의해 국제적으로 금지되어있었는데 일본은 미국 등과 함께 이 협정을 비준하지 않고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가 세균공격을 받을 경우에 보복할 권리를 보존하려는 리유에서였는데 일본이 중국에서 벌린 세균전은 결코 보복적인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제네바협정의 정신을 짓밟고 세균전을 실시하고있었다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번에 요시미 요시아끼들과 조사한 자료에는 일본의

세균전에 대한 사실이 그밖에도 많이 포함되어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1940년과 1941년사이의 일본의 세균
전에 관한 보고만 하였습니다.